



공주민제(DCA) 비판에 대한 반격: 기술, 분배, 거버넌스의 재정립

개요

앞선 보고서에서는 네오모나키스트 커티스 야빈과 기본소득(UBI) 옹호자 등 ‘레드팀’이 제기하는 공주민제(DCA) 비판을 정리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DCA 지지자의 시각에서 이 비판들을 검토하고 반박한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 보편적 지분 배당의 지속 가능성, 분산 소유가 경쟁을 저해할 위험, 평균 시민의 거버넌스 역량, 제도 전환의 복잡성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룬다. DCA는 단순한 정책 패키지가 아니라 AI 시대의 공정한 부·거버넌스 재구조화를 위한 종합적 제안임을 강조한다.

1. 노동 소멸 전제의 근거

레드팀은 DCA 선언이 자동화에 따른 노동 소멸을 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경제 연구에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충격은 이미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규모**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블로그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 세계 일자의 약 4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고용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¹. IMF 연구는 특히 AI 취약 직업의 고용 수준이 AI 역량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5년 뒤 3.6% 낮았으며, 생성형 AI 도입이 초급·신입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인용한다 ². 이는 노동소멸을 단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소득 기반의 소비가 점차 약화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 **루틴 업무의 임금 하락** – NBER의 연구는 지난 40년간 미국 임금 구조 변화의 50~70%가 루틴 업무가 자동화로 대체되면서 발생한 상대적 임금 하락에 의해 설명된다고 보고한다 ³. 이는 AI가 단순·반복적 업무를 대체하여 중간층 노동자의 소득을 잠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IT 연구자들은 직무에서 ‘비전문적 작업’을 제거하는 자동화는 임금을 상승시키지만 고용은 감소시키고, 반대로 ‘전문적 작업’을 제거하는 자동화는 임금을 낮추고 고용을 늘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⁴. 이러한 비대칭 효과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기술적 실업의 위험을 동시에 제기한다.
- **AGI 시나리오와 유효수요 붕괴** – 2025년의 연구는 AGI(범용 인공지능) 노동이 인간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0으로 만들고, 임금이 자본소득보다 낮아지며, 자본 소유자에게 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⁵. 연구는 노동 소득의 붕괴가 총수요 부진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유 소유 구조(예: 협동조합·공공 참여 모델)나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DCA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새롭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DCA의 전제가 노동 완전 소멸이라는 극단적 예측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은 과장이다. 그러나 AI가 노동수요와 임금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자본소득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통찰은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폭넓게 공유된다. 따라서 노동소득 이외의 지속적 소득원과 자본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접근은 현실적이다.

2. 보편적 지분 배당(국민유화)의 지속가능성

레드팀은 “모든 시민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것의 비용과 실행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풍부한 실증 연구는 보편적·지속적 배당이 경제를 자극하고 노동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2.1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의 경험

- **고용 영향** – 알래스카는 1982년 이후 모든 주민에게 영구 기금 배당(PFD)을 지급하고 있다. NBER 연구에 따르면 이 배당은 전반적인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트타임 취업률을 1.8%p(17%) 증가시켰다 ⁶. 연구진은 현금 배당이 지역경제를 자극하여 고용을 유지한다고 결론짓는다 ⁷. 이는 지속적 배당이 노동의욕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반박한다.
- **빈곤 감소** – 사회복지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PFD는 매년 1만5,000~2만5,000명을 빈곤에서 구제하고, 아동 빈곤 증가를 약 50% 억제했다는 평가가 있다 ⁸. 이러한 효과는 단순한 일회성 보조금이 아닌 지속적인 배당이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 **소비 진작 효과** – 배당금은 저축보다 소비에 더 많이 쓰인다. 또 다른 NBER 연구는 가계가 배당을 자본이득보다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발견하고, 배당 소득이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⁹. 이는 지분 배당이 민간 소비를 떠받쳐 유효수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2 DCA의 재원 조달과 제도적 준비

레드팀은 DCA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I 시대의 새로운 세원과 자본 수익을 활용하는 정책이 이미 논의되고 있다. 2026년 브루킹스 연구는 AI가 노동과 소비세 기반을 훼손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로봇·컴퓨트·토كن 세, 차등 소비세, AI 관련 자본세 등을 통해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¹⁰. 특히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 원드풀 조항(windfall clauses) 및 Universal Basic Capital을 통해 AI 기업의 수익을 넓게 공유하는 방안을 권고하며, 이러한 주식형 제도는 AI의 경로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역할과 광범위한 번영 공유 기능을 있다고 설명한다 ¹¹. DCA는 데이터·AI·공공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렌트의 일부를 사회지분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술 발전의 과실을 시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3. 경쟁 저하와 공통 소유 논쟁에 대한 반박

공통 소유(common ownership)가 경쟁을 약화시킨다는 논란은 주로 몇몇 대형 기관투자자가 경쟁 기업의 상당한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여 가격경쟁을 저해할 때 발생한다. 이는 ‘빅3(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 같은 자산운용사가 동일 산업 내 여러 기업의 대주주인 경우다. 그러나 DCA의 국민유화는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 **소유 집중이 아닌 분산** – DCA에서는 각 시민이 소량의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도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일반 시민은 우편 투표처럼 위임장 범위가 제한되고,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 상한·시간·지연·다중 승인 등 현정 원칙을 적용한다 ¹². 반경쟁적 유인이 생기기 어렵다.
- **근로자 소유의 실증적 효과** – 직원주주제(ESOP)와 노동자 협동조합 연구는 분산 소유가 기업 성과와 근로자 복지를 동시에 개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NCEO 연구에 따르면 S-코퍼레이션 ESOP 직원의 자발적 이직률은 미국 평균의 약 1/3이며, 퇴직 저축은 두 배 이상이다 ¹³. 또 다른 연구는 식품업 ESOP 기업이 전통기업보다 코로나 기간에 인력 해고율이 낮고,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고 보고한다 ¹⁴. 이러한 실증은 분산 소유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기보다는 장기적 투자·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불평등 완화** – ESOP 협회는 근로자 소유가 여성과 유색인종의 자산 격차를 줄이고 재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¹⁵. 단 7.1%의 저소득층만이 직원주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더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¹⁶. DCA는 이러한 자산 접근권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레드팀이 제기한 “공통 소유 = 독과점”이라는 단순 구도는 대형 자산운용사 중심의 common ownership과 보편적 분산 지분권을 혼동한 결과이며, 후자는 경쟁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 성과와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

4. 거버넌스와 기술적 한계에 대한 반론

레드팀은 블록체인 기반 DAO 거버넌스가 복잡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추적 가능성·불변성을 공적 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장점을 제공한다.

- **투명성 및 신뢰 구축** – 학술 리뷰는 블록체인이 거래 기록을 변경 불가능하게 저장하고, 투명성과 추적성, 위변조 방지, 신뢰성을 제공하여 중개자의 의존도를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한다고 설명한다 ¹⁷ ¹⁸. 이는 공적 자산 배당과 투표 기록을 신뢰할 수 있게 하며, 부패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줄인다.
- **대리·숙의 구조** – DCA는 모든 시민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시간 지연, 위임 상한, 숙의형 위임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전문가에게 위임하되 포획을 방지하는 설계를 채택한다 ¹². 평균 시민은 주식 펀드에서처럼 전문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투명한 기록을 통해 대리인이 신뢰를 잃으면 교체할 수 있다.
- **디지털 거버넌스의 발전** – 전 세계적으로 DAO와 분산 거버넌스 실험이 늘고 있으며, 기술적 결함은 초기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선되고 있다. DCA는 부분적으로 기존 제도와 병행하면서 시험·점진적 확산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틸중앙 거버넌스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아빈식 일인 통치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다는 점은 명확하다. 중앙집권적 모델은 부패와 권력 남용에 취약하다는 역사적 경험이 많다.

5. 기본소득 주장과의 비교: 대립이 아닌 보완

UBI 지지자들은 DCA가 복잡하고 즉각적 소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DCA의 사회지분 배당은 기본소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

- **노동시장 압력 완화** – 알래스카 PFD 사례처럼 보편적 배당은 노동 참여를 유지하면서 소득을 보완한다 ⁷. DCA의 지분 배당은 UBI처럼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자본 축적을 통해 장기적 자산을 형성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재분배 강화와 자본 접근권 확대** – UBI는 모두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지만, 자산 축적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는 미국에서 상위 10%가 전체 가계 자산의 67%를 보유하고 하위 50%는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¹⁹. Joseph Blasi 교수는 가계가 부를 형성하는 주요 수단은 이익·배당·이자 등 자본 소득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²⁰. DCA는 바로 이 자본 접근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이다.
- **대상별 정책 포트폴리오** – 사회정책은 소득 보장, 교육·의료·주거·재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DCA는 AI 수익 분배와 자본 축적을 담당하며, UBI나 공공서비스 강화와 함께 설계될 수 있다. 두 제도는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6. 재산권과 “몰수” 논쟁에 대한 해명

레드팀은 DCA가 기존 자본을 희석시켜 사유재산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CA는 국유화가 아니라 국민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지 않는다.

- **기존 소유권 존중** – DCA는 공공자산, 데이터, AI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규 경제적 렌트를 사회지분으로 전환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을 “정기적 기여” 형태로 소액 희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windfall clause** 논의와 유사하며, 브루킹스 연구는 “AI 수익의 일부를 사회가 넓게 공유하도록 하는 윈드풀 조항과 Universal Basic Capital이 광범위한 번영을 보장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¹¹.

- **혁신 인센티브 유지** – DCA는 기업가와 자본가의 공을 인정하고 정상적 투자수익을 보존하려 한다. 세제는 초과 이익(렌트)에 집중하고, 정상적 수익은 보존하도록 설계된다 ²¹. 이는 혁신 인센티브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AI 개발의 과실을 사회가 공유하도록 조정하는 접근이다.

7. 정치적 전환과 실행 가능성

레드팀은 광범위한 제도 전환의 정치적·법적 저항을 우려한다. DCA 지지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단계적 구현** – DCA는 기존 제도를 즉각 폐지하는 혁명이 아니라, 준비 단계(국부펀드 조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 포스트-노동 단계(소비세 및 토큰세 확대) → AGI 단계(AGI 자본세 도입)로 전환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한다 ²². 이는 사전에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충격을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전략이다.
-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교육** – 시민이 기업 재무를 모두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우이다. 투표 위임, 숙의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와 학습을 촉진할 수 있으며, SNS나 온라인 게임에서 대규모 집단 협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디지털 거버넌스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분산 시스템에서도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 **정치적 저항을 줄이는 설계** – 기존 자본 소유자에게는 기여에 대한 보상과 안정적 규칙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알래스카 PFD가 초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널리 수용된 것은 분명한 규칙과 공정성, 분배의 광범위한 혜택 덕분이다. DCA 역시 포용적 설계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8. 결론: 기술 발전을 포용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DCA는 AI 시대에 불평등과 유효수요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한 전향적 제안이다. 레드팀의 비판은 유익한 토론을 제공하지만, 현대 연구는 다음을 뒷받침한다:

1. **AI·자동화가 노동수요와 임금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노동 기반 세금과 소득만으로는 미래 재정과 소비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점** ²³ ³.
2. **보편적 배당은 고용을 파괴하지 않고 빈곤을 줄이며 소비를 촉진한다는 알래스카 경험** ⁶ ⁸. DCA는 이러한 경험을 확대하여 자본 접근권을 평등화한다.
3. **분산 소유·거버넌스는 생산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쟁 저하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집중 소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 ¹³ ¹⁴.
4. **블록체인·DAO는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여 공적 자산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¹⁷.
5. **국부펀드, 원드풀 조항, Universal Basic Capital 등 AI 수익을 사회와 공유하려는 제도는 주류 연구에서도 제안된다는 사실** ²¹.

레드팀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DCA는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소득 중심 사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권리·자본·거버넌스의 재설계를 통해 평등한 번영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

1 2 23 New Skills and AI Are Reshaping the Future of Work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6/01/14/new-skills-and-ai-are-reshaping-the-future-of-work>

3 Tasks, Automation, and the Rise in US Wage Inequality | NBER

<https://www.nber.org/papers/w28920>

4 FutureTech

<https://futuretech.mit.edu/publication/expertise>

5 2502.07050

<https://arxiv.org/pdf/2502.07050>

6 7 The Labor Market Impacts of Universal and Permanent Cash Transfers: Evidence from the Alaska Permanent Fund | NBER

<https://www.nber.org/papers/w24312>

8 Select Research on Cash Transfers

<https://acf.gov/sites/default/files/documents/ofa/selected-research-cash-transfers-508.pdf>

9 The Effect of Dividends on Consumption | NBER

<https://www.nber.org/papers/w12288>

10 11 21 22 Korinek-Lockwood-FINAL-for-website.pdf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26/01/Korinek-Lockwood-FINAL-for-website.pdf>

12 manifesto.pdf

<https://leesangyeon69-maker.github.io/DCA/manifesto.pdf>

13 14 Research on Employee Ownership

<https://www.nceo.org/research/research-findings-on-employee-ownership>

15 16 Employee Ownership Reduces Wealth Inequality | The ESOP Association

<https://www.esopassociation.org/articles/employee-ownership-reduces-wealth-inequality>

17 18 Blockchain governance and trust: A multi-sector thematic systematic review and exploration of future research directions - PMC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231554/>

19 20 Conference shows the promise of employee ownership | Institute for Business in Global Society

<https://www.hbs.edu/bigs/conference-shows-the-promise-of-employee-ownership>